

“전통문화와 비엔날레 도시, 광주서 영화제 열수 있어 행운”

광주극장 스웨덴 영화제 개최...안 회그룬드 주한 스웨덴 대사

지난 7일 광주극장에서 시작된 스웨덴 영화제가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진행 중이다. 개막식에는 500여명이 다녀갔고, 좁혀잡기 어려운 스웨덴 영화의 매력을 느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 라이프’를 주제로 모두 8편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된다.(무료 관람) 당초 개막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광주를 찾지 못한 안 회그룬드(55) 스웨덴 대사는 “안타깝게도 이번 광주 영화제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광주에 방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메일 인터뷰를 신는다.

‘뉴 라이프’...인간 고유한 가치 담은 8편 12일까지 무료상영
아시아문화전당 아이들 문화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 인상적
스웨덴 복지는 가난한 이 뿐만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

-광주에서 처음으로 스웨덴 영화제가 열린다. 서울,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행사를 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최대한 많은 한국 관객과 좋은 스웨덴 영화를 공유하고자했다. 수도인 서울에서 시작해 ‘영화의 수도’인 부산으로 이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영화제를 넓히고자 이곳 저곳을 살펴봤을 때 광주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광주는 강한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비엔날레와 같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도시라는 생각에서다. 또 스웨덴이 2013년 광주에 명예영사관을 설립한 최초의 국가가 된 점도 인연이 있다. 아름다운 극장 중 한 곳인 광주극장에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스웨덴 영화의 매력과 스웨덴 영화 현황은 어

떠한가.

▲스웨덴 영화의 매력은 아마도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슬픔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는 데 있다. 스웨덴 영화가 종종 어두운 색깔을 지니기도 하지만 내 생각에 한국 영화인들이 그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스웨덴 영화하면 그레타 가르보나 올레 탄생 백주년 행사를 진행한 잉그리드 베그만을 떠올리고 범죄영화 팬들은 ‘밀레니엄-여자를 증오한 남자’들도 기억할 거다. 한국 영화는 예테보리 국제영화제와 스톡홀름 국제영화제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최근 정주리 감독의 ‘도회야’, 임권택 감독의 ‘화장’ 등이 관객들을 만났다. 2014년 기준 영화 관객수는 1630만명, 수입은 2212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은 157만명을 동원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었고 정부



〈사진제공=주한 스웨덴 대사관〉

가 약 445억원을 영화계에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등 영화 분야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영화제도 열리고, 11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스웨덴 마리아 린드 감독이 선정되는 등 스웨덴과 광주가 문화적으로 가깝게 느껴진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 개관한다. 광주와 스웨덴의 문화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모든 것은 현재 광주가 다양한 형태의 문화 행사들을 위한 아주 좋은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미래에 한국에서 문화행사를 기획할 때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광주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에 아이들이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점이 좋았다. 스웨덴에서는 보다 어린 연령층에 문화가 지닌 놀라운 요소들을 소개하는 문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제 광주에서도 이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마리아 린드가 보다 더 다양한 스웨덴의 문화를 광주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광주는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한다. 하지만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되는 등 여성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스웨덴의 양성 평등문화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사회 시스템이 궁금하다.

▲스웨덴의 일 가정 양립정책은 단순한 원칙들로 만들어졌다. 남성과 여성이 가정과 일 모두에 있어서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는 거다. 물론 여성만이 출산을 할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책임은 최대한 동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스웨덴의 일 가정 양립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한국의 가족 중심 세제(稅制)와는 다른 개인 중심

세제, 아빠가 적어도 3개월은 써야만 하는 18개월 동안의 유급 양육휴가, 18개월 부터 6세까지 제공되는 저렴한 질 좋은 보육시설로 구성돼 있다.

-스웨덴 복지는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들도 복지에 힘을 쏟고 있지만 세금 정책 등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도 있다. 스웨덴 복지 시스템을 지탱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스웨덴 복지정책의 핵심은 복지가 가난한 이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스웨덴 국민들은 대체로 한국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스웨덴 사람들은 이 세금들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내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저렴한 양육비, 무료 대학 등록금 또는 양로원 보조금과 같이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영유아기부터 노후까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 스웨덴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는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복지 시스템이 매우 투명하게 운영돼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화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광주는 정의, 민주주의, 개인 존중과 같은 이 모든 중요한 가치들의 발상지다. 이번 스웨덴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또한 어떤 면에서 이 가치들은 그려내고 있다. ‘뉴라이프’라는 주제로 만나는 상영작은 인생의 중대한 위기, 또는 기회가 찾아올 때 변화해 가는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웨덴이 어떤 국가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용희기자 mekim@kwangju.co.kr



‘타히티의 향기로운 꽃’

천경자 유작 2점 광주 경매 나온다

A-옥션 17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서...총 335점 출품

천경자 화백의 유작 2점이 오는 17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열리는 (A-옥션)의 미술품 경매에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출품된 작품은 ‘타히티의 향기로운 꽃’(33.5x24cm)과 ‘무제’(14x18cm)다.

천 화백은 1969년 타히티를 시작으로 28년 동안 남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등 해외 스케치 여행을 다녔다. ‘타히티의 향기로운 꽃’은 종이에 채색을 한 작품으로 당시 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표현했다. 추정가는 700만원에서 2500만원이다. 차 속 남녀를 묘사한 ‘무제’는 종이에 수묵으로 작업을 했고 추정가는 600만~15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우리의 손으로 담아낸 남도(南道)의 풍광(風光)’을 주제로 열린다. 천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강연균, 오지호, 이강하, 임직순, 진양욱, 황영성 등 대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또 의재 허백련, 소치 허련, 남궁허건의 남종화도 선보이는 등 총 335점, 추정가 총액 약 50억원의 작품이 출품된다. 출품작 프리뷰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전시장에 방문하면 작품 감상과 전문



‘무제’

가의 상세한 정보를 들 수 있다. 경매는 17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문의 02-725-88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강동권 개인전

28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화사하게 햇빛을 머금은 장미가 담장이라도 손에 잡힐 것만 같다. 꽃잎에 진 그림자는 한층 더 입체감을 부각시킨다.

강동권 작가가 오는 28일까지 무각사로터스갤러리에서 ‘행복/느낌’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 그동안 선보였던 꽃을 소재로한 정물화 30여점을 출품한다. 꽃이 만개한 순간을 포착해 꽃의 생명력과 생의 기쁨을 표현한다. 작품 ‘장미가 족’에서 분홍색 꽃 사이에 자리잡은 붉은 꽃은 가족들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고 아늑해보인다.

강씨는 작가노트에서 “작품 속 꽃을 보는 이들이 순간과 영원, 피고 짐의 의미를 읊미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스스로 위안 받고 삶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행복한 정물’

조선대 미술대학·대학원을 졸업한 강씨는 개인전 5회·단체전 약 40회에 참여했고 2012 광주우수예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383-00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당신이 궁금한 셀럽! **밀착토크** 해드립니다!

밀착토크 **꿈을 담는 캔버스** Show

MC 신현준 MC 홍진영

매주 월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